

생명을 위협하는 농약오염



박범이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소식이나 보도를 많이 접한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등. 그런데 그중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까닭인지 잘 모르는 듯하다.

토양오염은 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나 농약오염, 쓰레기문제 등의 원인으로 인해 땅이 죽어가는 것을 말한다.

땅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어 그 자체의 생명활동과 미생물간의 유기적 활동으로 토양을 비옥하고 ‘살아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땅에 비료나 농약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자연분해되지 않는 비닐, 플라스틱류의 쓰레기를 버리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마구 방출시켜, 땅은 산성화되고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2회에 걸쳐서는 이러한 토양오염의 원인과 그 극복대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중금속 배출의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만 알아보겠다.

1. 농약오염

옛날 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인분이나 가축분뇨, 음식찌꺼기 등을 모아 퇴비로 사용하였다. 그때의 농작물은 말 그대로 무공해 자연식품이었으며, 지금처럼 가축 분뇨나 음식 찌꺼기가 골치 덩어리가 아닌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영양분이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반(反)생태학적인 인공 농약이나 비료는 필요도 없었고, 오직 자연의 섭리에 따라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중 일제가 군량미의 조달을 위해 산미증산운동을 벌이면서 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후 농약사용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이나 비료까지 마구 사들였다. 이른바 「경제

성장」을 위한 이윤을 남기고자 했던 60~70년대의 경제개발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비옥한 우리의 옥토는 강한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급격히 산성화되었고 해충의 저항력도 커졌으며 지력도 감퇴되었다. 과다 사용되는 이 농약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농약에 의한 피해는 아무래도 농민에게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농민의 82%가 농약을 살포하면서 두통이나 현기증, 구역질,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경험했다고 한다.

농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 장치를 갖추고 농약을 뿌리면 괜찮다고 하나 실제로 일을 하면서 모든 안전 장치를 갖추고 일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농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 혼란이 오는데다가 업자들은 잘 안팔리는 농약까지 섞어 팔고 있어 농약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표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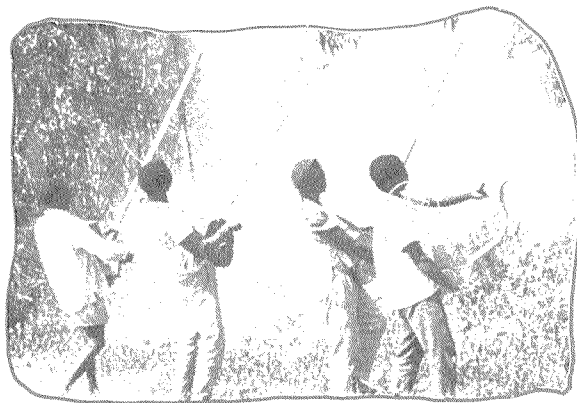
보다도 더 많이 뿌리게 된다.

특히 제초제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위험한 약물인데 사용방법이 거의 외래어로 되어있고 말도 어려워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없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농약 값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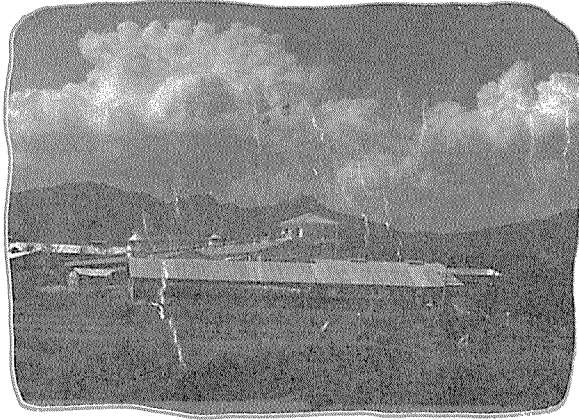
이러한 피해도 참으면서 농민들은 먹을 거리를 생산하지만 시시때때로 농업정책이 변하여 다수확 품종이니 뭉니해서 품종 개량한 작물들을 심게 하고 이 새로운 작물에 적응하는 비료와 농약을 또 다량 살포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농작물에 농약 성분이 들어가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잔류농약’ 농작물을 먹는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농작물을 통해 인체내에 흡수된 농약은 배설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되어 전신마비, 현기증, 복통, 호흡곤란 등의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게 한다.

그런가 하면 농약에 오염된 풀을 소가 먹고 다시 이 쇠고기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농작물을 통해 인체 내에 흡수된 농약은 그대로 축적되어 현기증, 복통,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의 중독을 일으킨다.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농약을
덜 사용한
유기농작물을
구입해야 한다.

인체내에 농약이 축적될 수도 있다. 최근 국내의 시체 해부 과정에서 간에 농약 성분이 농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학계의 주장이 이러한 것들은 증명해 준다.

더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 유성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아무리 잘 씻어도 농약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① 과일은 잔류농약의 90%가 껍질부분에 존재하므로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겨 먹는다.

② 야채도 마찬가지로, 상추, 양배추 등의 겉 잎은 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① 토양오염을 줄이고 미생물에 의해 빨리 분해될 수 있는 농약을 개발하도록 소비자들의 권리를 펴는 운동을 하고,

② 농약병에는 농약성분이나 사용방법, 주

의사항 및 중독 시의 해독방법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농약을 덜 사용한 유기농작물 등을 구입하고,

④ 농약사용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웃, 농민들과 공동 실천하는 길을 찾자.

그런가 하면, 무방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수입농산물도 문제이다. 수입농산물은 우리의 농업을 폐쇄시킬 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까지 운송기간만도 최소한 2~3개월 이상 걸리므로 농약이나 방부제의 사용은 엄청나다.

실제로 89년 6월 미국산 자몽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 이후 수입식품의 농약이나 중금속 검출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부두 수입 곡물 하역작업 노동자 이모씨는 '살충제로 뒤범벅된 이런 곡물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동아」 90년 12월 8일자)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농약오염도 심각한데 외국에서 몇 개월씩 '씩

지않고' 물건너 온 수입식품은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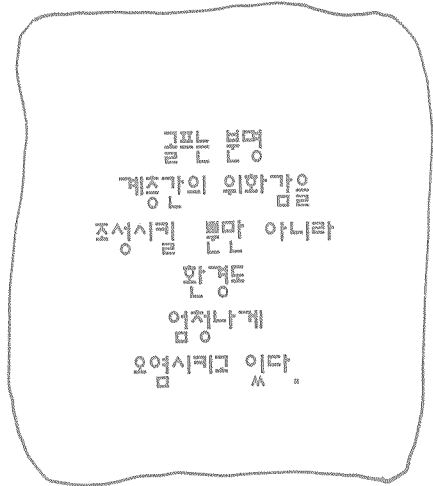
좋은 식품이란 '제 철에 제 땅에서 난 것', '무공해·무농약·무비료 식품'이다. 서로 힘을 합해 작게는 수입농산물 안먹기부터 '좋은식품'의 공동구입, 공동 나눔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땅도 살고 우리도 산다.

3. 골프장 공해

지난해 9월 대구시 팔공 골프장 아래 하천에서 기형 물고기가 대량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골프장의 캐디가 기형아를 낳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골프가 '사치성 운동'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82.5%, '국민적 스포츠'라고 대답한 사람이 1.8%라는 신문보도(한겨레, 92년 8월 3일자)처럼 골프는 분명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다.

골프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잔디에 뿌려진 농약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빗물에 씻겨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 인근 마을의 식수원을 오염시킨다. 또한, 골프장의 잔디는 거의 부드러운 외국산을 쓰는데, 이 잔디는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견디지를 못해 결국은 엄청난 농약을 뿌려 잔디를 보호해야 한다.

이 골프장에서 나오는 농약을 정화 처리하는 시설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게다가



골프장에 큰 비라도 내리면 91년 용인에서 만도 25명이 죽은 것과 같은 홍수나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0.1%의 골프 인구를 위해 이처럼 심각하게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관계당국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신규 골프장 허가는 내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 및 운영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과 업주들은 그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이익금을 환원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기업에 기대해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지역전체, 지방의회,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기업이 실천하게끔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골프가 아닌 산림욕이나 역사유적지 탐방 등으로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 하겠다. ☞

〈필자=여성민우회 노원·도봉지회원〉